

인물로 배우는
도덕

책임 윤리의 창시자

한스 요나스

(Hans Jonas, 1903~1993)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는 독일의 생태 철학자로,
나치를 피해 1933년 영국으로 탈출하였다가 1935년 팔레스타인,
1949년 캐나다를 거쳐 1955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요나스는 뉴욕의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를 통해 요나스는 ~~환경 윤리학~~ 또는 생태 철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의 한 분야를 열었습니다.

요나스는 인간 중심주의가 도구적 기술관과 어우러져
환경 파괴와 기술 만능주의를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책임의 윤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너의 행위의 영향력이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처럼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윤리는
인간과 자연까지 포함하도록 전통 윤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고,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